

유교 이념의 현대적 성찰과 전망

이 동 준*

I

현대는 민족사적으로 보나 인류사적으로 보나 매우 중대한 고비에 있다. 일반적으로 근대 또는 현대의 특성은 '민주화'와 '과학화'에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지난 세기 동안 우리는 동양사회에 있어서 가치관의 증핵이 되었던 유교에 대해 그것이 근대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라 하여 비판·부정하는 경우와, 그와 반대로 유교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재인식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본다.

무릇 인간의 역사가 한 시대나 한 지역에 그칠 수 없듯이, 어떤 위대한 종교나 사상 역시 한 시대에만 국한하여 응용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시대와 변화에 따라 어떻게 생명력 있게 활용될 것인지를 밝히는 일이 중요하다. 한편 어떤 理想이 있다고 하여 그것이 當代에 완전히 실현될 수는 있는 것만도 아니다. 孔子도 轍環天下하였으나 그 뜻을 펴지 못하였다. 동서양의 많은 성현과 철인의 경우가 그러하였다. 어떤 시대에는 참(眞)이던 것이 그 다음에 보면 달리 보이는 수가 있는 것이다. 또 한 이념이古今을 막론하고 善用되는 경우와 誤用되는 경우가 있으며, 어느 한편으로 밝은 면이 있으면 다른 한편으로는 그늘지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어떠한 종교나 사상도 그에 대해서 쉽사리 평가할 수는 없는 일이다.

동양사회가 근대로 접어들고 갑자기 서양문물이 밀려오면서 동양의 많은 지성인들이 서양의 과학과 민주주의에 크게 놀란 것이 사실이다. 전통적 가치관의 주류였던 유교가 非民主的이라거나 非科學的이라고 비난받기도 하고, 동양사회가 落後한 원인이 유교에 귀인되기도 한다.

서양의 근대적 발전에 비추어 볼 때 동양사회가 뒤떨어진 것은 사실이다. 오늘날 동서양의 교통이 열리고 지구가 한마을과 같이 된 것이나, 가난하고 천하고 찌든

* 성균관대 교수, 한국철학

백성들이 편하시되고 천대받다가 이제는 개개인이 독립된 인간으로서 기를 펴고 살게 된 것도 과학과 민주주의의 덕택이라 아니 할 수 없다. 현대과학과 민주주의의 충격이 아니었다라도 동양은 그 나름대로 살았겠지만, 현대적 관점에서 보자면 여전히 구태의연한 상태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현대과학과 민주주의의 발달은 비록 그 형태가 다양한 것이기는 하지만, 서양에 있어서도 새로운 국면의 개척이었음에 틀림없다.

민주주의의 발전은 과학의 발달과도 상응하는 것이다. 그 일례로 도서출판의 경우를 보자. 책이 많이 나와야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고 지식과 문화가 널리 보급될 수 있다. 참된 민주주의란 백성들이 잘 알아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즉 知性의 普遍化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오늘날 우리는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통하여 동시에 많은 정보를 나누어 가질 수 있다. 이것은 과학의 힘이며 예전에는 없었던 일이다. 서양에도 중세기에는 양의 가죽에 글씨를 써서 책을 만들었다. 높은 지식을 대량으로 보급할 도리가 없었다. 오히려 인쇄술은 동양이 더 발달했었다. 따라서 小數人의 지도자가 多數를 지도할 수밖에 없었다. 오늘날과 같이 정보의 홍수 시대는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커다란 진통을 겪고 있다. 민주주의란 이미 만들어 놓은 기성품과 같이 입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며, 우리의 삶과 전통으로 그것을 대치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또 과학의 발달은 인류에게 새로운 삶의 형태를 가지도록 하였다. 그러나 과학은 과학이요, 인간이 아니다. 또 민주주의와 과학을 말하지만 그것들이 유교정신에 어긋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며, 우리의 전통적 삶의 흐름이 민주주의와 과학에 의하여 단절되거나 그것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의 충격에 의해 보다 풍부해지며 새로운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라 한다면, 우리 전통에 대한 보다 새롭고 근본적인 인식이 요망된다 하겠다.

과학기술 문명은 인간의 삶과 자연에 대하여 그 본연의 모습을 파괴할 수도 있으며, 민주주의는 인간과 사회를 상대적 혼란에 빠뜨릴 수도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현대적 병폐로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유교에 대하여 흔히 잘못 이해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유교를 매우 높게 평가하는 경우가 있다. 시카고대학 교수였던 크릴(H.G. Creel)은 그의 저서 『중국의 사상』(*Chinese Thought*)에서 이르기를, “인류의 생활에 대하여 공자 이상으로 심원한 영향을 행사한 사례는 드문 일”이라고 하면서, “중국인들은 대를 거듭하면서 공자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었고 오늘날에는 중국

공산주의자 중에서도 공자를 자기들의 혁명전통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로 규정하는 사람이 있다. 서양에 대한 공자의 영향은 우리들이 간혹 깨닫는 것보다 더 컸다. 그것은 17-18세기에 있어서 특히 그러했으며, 이러한 사정을 일컬어 라이히 바인(Reichwein)은 '공자는 18세기에 계몽사상을 뒷받침한 聖者가 되었다.'고 말하였다. "(같은 책, 44쪽)라고 평가하였다. 그는 공자의 사상은 동양인에게는 물론이요 서양문화의 근대적 전환을 가져오게 했던 계몽사상과 깊은 관계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공자가 보인 "호소력의 비밀"이란 "인간적 가치의 고귀성에 대한 일관된 주장"에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하고 다른 데서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이를테면 '知的民主主義(Intellectual Democracy)를 일컬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사례는 서양인조차도 유교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는 경우, 오히려 근대정신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요소가 유교 속에 내재함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게 한다.

II

유교를 넓은 의미의 인간학이라 한다면 그것은 "어느 한정된 영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교육·정치·철학·종교·예술 등 인간의 자기성찰 및 자아실현 그리고 역사적·사회적 현실의 문제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유학원론", 머리말, 성균관대)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 문제들을 모두 다룰 수 없으므로 종합해서 증점적으로 논급해 보고자 한다.

첫째, 유교가 인간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다고 할 때, 여기서 인간이라 함은 정신과 물질, 形而上과 形而下를 동시에 내재시킨 인간을 말한다. 재래의 용어로는 '天地人三才'라고 한다. 『周易』의 乾卦(☰)와 坤卦(☷)가 그것이며, 이러한 하늘의 요소와 땅의 요소가 조화를 이룬 상태를 泰卦(☵)에서 볼 수 있다. 하늘과 땅을 구비하고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다. 『中庸』에서는 '中和'를 말하기도 한다.(致中和天地位焉萬物育焉)

오늘날 정신문화와 물질문명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면, 이러한 이상은 유교에 있어서 원형적으로 그리고 구조적으로 틀 지워져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인류사를 넓게 보아 중세기적 특징을 정신문화라 하고, 근대적 특성을 물질문명이라 한다면, 그리고 이러한 양면의 발전적 조화를 지향한다고 할 때, 유교이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둘째, 이와 관련하여 一言할 것은 유교의 물질관, 또는 경제관 내지 산업관의 문제이다. 본래 『大學』에서 이르듯이 유교에서는 “德은 본이요 財는 末이다.”(德者本也 財者末也)라 하여 윤리와 경제를 本末關係로 파악하였다. 물질보다 인간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에 따르면 인간의 덕성을 중시하고 물질을 輕視할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로 유교 전통 속에서 그런 점이 많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나아가 이것이 산업진흥에 장애가 되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本末이란 것이 輕重을 뜻하는 것이요 有無나 正否의 문제가 아닐진대, 本을 取하고 末을 버리라는 뜻은 아닌 것이다. 기실 末을 取한다고 할 때 그것이 아무리 풍요하다 하더라도 末端은 末端임에 틀림없다. 그러므로 적어도 유교가 물질문명에 어긋나는 것은 아닐 뿐 아니라, 비록 물질문명을 긍정하더라도 本末關係는 오늘날에 있어서도 그 진리성을 상실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현대적 병폐를 是正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과거에는 사회적으로 士農工商의 직업이 구별되었고 貴賤도 그것에 따라 달랐다. 공자가 당시의 주요산업이었던 농업에 대해 어느 제자(樊遲)의 질문을 받았을 때, 그것은 그 전문가(老農·老圃)에 물을 것이라 하여 답변을 거부하고 그 제자를 小人視한 대목이 『論語』에 나온다. 그러나 공자는 인간교육에 전심전력한 것이지 물질의 생산을 第一義로 한 것은 아니었다. 물질적 생산과 인간교육을 엄연히 구별하였던 것이다. 공자는 富의 생산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였다. 그러나 君子란 富에서 도출되는 것이 아니다. 물질쯤은 능히 처리할 수 있는 지도적 인간상을 공자는 추구하였던 것이다. 오늘날 사람들에 대한 교육적 조건은 크게 개선되었다. 오늘날에도 士農工商이라는 직업상의 구별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農工商”의 전문적 직업인은 한갓 기능인으로서가 아니라 ‘士’의 품성을 自己化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士農工商을 차별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관계’지을 수 있는 방향의 모색이 요청된다 할 것이다.

셋째, 교육적 견지에서 본다면 앞서 일컬은 바와 같이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 교육의 기회는 과거처럼 귀족이나 지배층에게만 열려있는 것이 아니며, 학교 교육을 위시한 교육기관의 확대와 교육수단의 발달로 대량교육이 가능하게 되었다. 의무교육이 초등학교를 넘어 중학교까지 도달하여야 한다고 보며, 이렇듯 교육의 수준은 날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자도 “가르침이 있으면 종류가 따로 없다.”(有教無類)고 하여 누구나 교육받을 수 있음을 말하였다.

그러나 현대교육은 普遍教育이요 大量教育이니만큼, 個性과 人格의 함양이라는

본래 정신을 잃어버리고 機能主義로 흐르는 폐단이 있다. 유교교육은 원래가 인격적 사림으로부터 출발한다. 교수와 학생이라기보다는 스승과 제자로서의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 “사람에 따라 가르침을 달리한다.”(隨人異敎)고 하듯이 개인교육을 특징으로 한다. 유교의 교육은 個人敎育이요, 人格敎育이며, 普遍敎育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현대교육은 유교에 대한 성찰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다.

공자는 벼슬도 하였지만 평생을 官人으로서가 아니라 敎育人으로서 보내었다. 공자의 말년에 있었던 병환 중의 이야기는 이를 잘 말해준다. 스승의 임종으로 생각한 子路가 문인중의 一人으로 하여금 家臣 노릇을 하도록 했을 때, 이것을 안 공자는 “오래되었도다, 자로의 거짓을 행함이어. 신하가 없는데도 있는 것 같이 하였으니 내가 누구를 속이라? 하늘을 속이라?”고 책망하였다. 그리고 “내가 신하의 손에서 죽기보다는 그대들 손에서 죽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나의 장사를 크게 지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길에서야 죽겠는가?”라 하였다.

넷째, 유교의 정치사상의 골자는 “政이란 正이다.”(政者正也)라 하여 “바르게 한다.” 또는 “正義를 실현한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정직한 사람을 등용하고 비뚤어진 자를 버려둔다.”(擧直措諸枉)라 함도 마찬가지이다.

원래 유교는 大同社會를 회구하여 “어진 이와 능력 있는 이”로 하여금 다스리는 자리에 있게 하며(選賢與能), 신의와 화목을 도모하며, 만민의 행복, 홀아비나 과부 그리고 인간으로서 가장 불행한 장애자나 병자(鰥寡孤獨廢疾)를 먼저 돌봐주어야 한다고 보았다.

靜庵 趙光祖는 말하기를 “무릇 임금과 신하란 것은 인민을 위해 만들어 놓았다. 상하가 다 이 뜻을 알아서 정치를 한다면 다스림에 어려울 것이 없다.”고 하였다. 공자는 “제몸 닦아 백성을 편안케 한다.”(修己以安百姓)라 하였으며, 이 구절은 新羅 眞興王巡狩碑에도 들어 있다. 『주역』에는 損卦(䷨)와 益卦(䷗)가 있는데,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 즉, 그 卦象에서 볼 수 있듯이 “위에서 떨어져 아래로 보태는 것은 益이 되고 아래에서 떨어져 위에다 더하는 것은 損이 되는 것이니, 기본이 되는 것을 損하여 높은 데에 더하는 것이 어찌 有益한 것이라 하겠는가?”(程傳)라 하였다. ‘위’라 함을 특권층을 말하고, ‘아래’라 함은 백성들을 일컫는다. 이것은 유교의 爲民사상을 잘 보여주는 것이며 經濟의 公益성과 社會의 平等을 강력히 주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볼 때 유교의 爲民사상은 무엇보다 뚜렷한 바가 있다. 그러나 민주정치라 하면 인민을 爲한 것일 뿐 아니라 인민에 依한 것이어야 한다고 보아, 인민의

參政權을 주장하며 인민 스스로가 자신의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개개인의 관계를 본질적인 協和의 입장에서 보는 경우와 鬭爭의 관계에서 보는 경우의 차이도 볼 수 있으며 그 문맥에 따라 爲民의 개념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인민에 의한 정치에서 권익을 보장받겠다고 말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형식에만 천착하고 그것이 진정으로 인민을 위한 것이 되지 못한다면 명백히 허사가 되고 말 것이다. 爲民은 依民에 우선한다. 그러므로 유교의 견지에서 민주주의를 말한다면 그것은 量的 民主主義보다는 質的 民主主義에 가깝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절대군주나 대중집단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賢과 能’을 갖춘 최고의 지성들이 주체세력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과거의 士林들을 그러한 방향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과 같은 대중민주주의의 시대에는 유교적 전통에서 보이는 정치이념이 재음미될 필요를 느끼게 된다.

끝으로, 앞서 유교를 넓은 의미의 인간학이라 하였거니와, 실로 유교는 成熟된 人間이 이루는 成熟된 社會의 건설을 목표로 한다. “밝은 덕을 천하에 밝힌다.”(明明德於天下)라 함은 이를 뜻한다. “인간이 능히 도를 넓힌다”(人能弘道)라 할 때, 이 인간은 교만한 인간이 아니다. 도를 넓히기 때문이다. 특정한 교리나 교조를 고집하거나 강요하는 것은 유교의 본의에 어긋난다. 모든 종교나 사상체계는 진실로 참된 人間の 成熟과 正義로운 社會의 具現을 위해 이바지함에 있어, 저마다 쓰고 있던 舊殼을 탈피하고 和協 속에 새로운 세계를 건설코자 한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따라서 유교의 인도주의 사상은 새시대의 전망과 창조에 先導的 역할을 수행할 빛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